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朝鮮前期 總集類 書籍과 서지학적 가치

옥영정 *

-
- | | |
|--------------|--------------|
| 1. 서언 | 3. 서적교류사적 가치 |
| 2. 인쇄기술사적 가치 | 4. 결언 및 제언 |
-

초록: 이 연구는 규장각의 귀중본 조사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규장각의 귀중본도서 조사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서지학적 가치를 인쇄기술사, 서적교류사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며, 조선전기의 간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규장각의 소장된 고문헌 중에서 조선전기에 목판이나 활자로 간행된 총집류 서적 27종을 대상으로 삼고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귀중본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규장각의 수많은 고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여러 유형의 기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전쟁으로 인한 약탈, 소실에도 불구하고 책이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가치는 가장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주제분야별로 종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총집류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식은 각 주제 단위로 귀중본을 조사선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고문헌의 이력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규장각, 귀중본, 귀중서, 총집류, 인쇄기술사, 서적교류사, 목판인쇄, 활자인쇄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교수.

1. 서언

전통시대에 문현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筆寫와 印刷였다. 그 중에서도 인쇄는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책을 생산해내는 주요 수단이었다. 목판인쇄는 매우 오랜기간 동안 함께해온 전통의 방식이었으며, 금속활자, 목활자, 陶活字(土活字) 등으로 구분되는 활자인쇄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인쇄하기에 적합한 대표적인 인쇄방법이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에는 초기 활자인쇄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일본이 많이 남아있고 시기의 변천에 따라 동일한 서명의 책이 다른 모양의 활자로 출판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목판인쇄본 또한 고려시대를 비롯한 조선전기의 것이 다양으로 남아있으며 그 주제는 역사, 문학, 불경, 자연과학서 등 다양하다.

이 글은 규장각의 귀중본도서 조사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규장각의 소장된 고문헌 중에서 조선전기에 목판이나 활자로 간행된 총집류 서적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귀중본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규장각의 조선전기 총집류 서적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간행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서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규장각 소장 고문헌에 대한 기준의 연구성과와 서지학적 분석결과를 두루 참조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규장각의 수많은 고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여러 유형의 기준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전쟁으로 인한 약탈, 소실에도 불구하고 책이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가치는 가장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로 그 시기를 정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물론 기준의 연구에서 이를 조선전기 간본에 대하여 가치부여가 없지는 않았지만 특정 주제분야 별로 종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총집류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각 주제 분야별로 살펴볼 때 인쇄기술사, 서적교류사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규장각의 귀중

본도서 조사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중에서 서지학적 가치를 인쇄기술사, 서적 교류사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정한 후, 조선전기의 간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총집류는 한 사람의 글을 모은 별집류와는 달리 두 사람 이상의 시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서거정 등이 편찬한 『東文選』이나, 김종직의 『東文粹』, 성삼문 등의 『六先生遺稿』, 김시습 등의 『生六臣合集』, 『列聖御製』, 『文苑黼黻』 등을 들 수 있으며, 중국인 저술로는 昭明太子의 『文選』, 송나라 賞德秀의 『西山先生真文忠公文章正宗』, 李昉의 『文苑英華』, 姚鉉이 編한 『唐文粹』, 명나라 李伯璵의 『文翰類選大成』 등을 들 수 있다.

총집류는 여러 사람의 작품들을 모은 것이라도 몇 가지의 요소에 따라 달리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데, 奏議를 모은 것은 총집류의 성격보다는 사료의 가치로 보아 史部에 분류하고, 여러 사람의 서간문만을 모은 것은 尺牘類에 분류한다. 또한 시문 중심으로 총집류에 모으지만, 잡다한 종류의 文만을 총집한 경우는 子部의 雜家類 또는 隨筆類, 및 雜纂類에 분류하기도 한다.¹⁾

『四庫全書總目』에서는 총집류에 대하여 建安(196~220) 이후 西晉의 학자 摯虞(250~311)가 詩賦라 명하여 편찬하고, 流別이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망실된 자료들을 분류하여 한 곳에 모으고, 훈어진 시와 문장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하여, 뒤섞이고 잡다한 것들을 刪削한 뒤 좋은 시와 훌륭한 문장들을 선집하여 엮은 것으로 보았다.²⁾

규장각에서는 총집류의 범주를 사고전서의 분류체제와 약간 달리 설정하고 있다. 楚辭類가 그러한데 규장각 소장 집부 고문헌 중에 총집류에 해당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부분류법에는 별도로 분리된 초사류를 총집류내에 포함하고 있다.

1) 玄英娥, 1987 『四部 分類法의 分析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05-107면.

2) 『欽定四庫全書總目』 卷186, 集部39, 總集類 1. (文集日興, 散無統紀, 於是, 總集作焉. 一則網羅放佚, 使零章殘什, 並有所歸, 一則刪汰繁蕪, 使莠稗咸除, 菁華畢出, 是固文章之衡鑒, 著作之淵藪矣. 三百篇既列爲經, 王逸所衰, 又僅楚詞一家, 故體例所成, 以摯虞流別爲始. 其書, 雖佚其論, 尚散見藝文類, 聚中, 蓋分體編錄者也.)

이 글에서는 규장각의 고서분류 체계에 따라 총집류에 수록된 내용 중에 조선 전기 간본 27종³⁾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총집류 간행본은 『文選』, 『詳說古文眞寶大全』, 『文翰類選大成』 등 중국에서 처음 편찬된 서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책들은 상당수가 고려시대부터 이미 전래되었고 이후 조선에 수용되어 다시 간행된 것들이다. 조선전기 간행된 총집류들은 대부분 15세기~16세기초에 집중되었는데, 형태서지적 특징, 문헌의 기록 등을 통해서 간행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규장각의 현존본 중에서 귀중서 범주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조선 전기본을 인쇄기술사적 측면과 서적교류사적 측면에서 지니는 서지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책의 전체적 구성이나 목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장각해제에 보다 상세하므로 이를 생략하고 간행시기추정의 근거 등 서지적인 특징에 주목하여 살펴본 내용이다.

2. 인쇄기술사적 가치

한국의 인쇄기술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중인 주제가 금속활자 인쇄분야이다. 금속활자의 재질, 조판틀과 조립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조선전기의 금속활자인본은 후대에 간행된 책의 초간본이 많아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인쇄기술사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활자의 재질이나 형태로 보았을 때 금속과 나무, 흙 등으로, 크기로는 대자, 중자, 소자 등으로 일차적인 분류가 가능하고 서체로는 인서체, 필서체 또는 갑인자체 읊해자체 등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활자의 외형으로 밑면의 모습에 따라 平底形, 터널형으로도 구분되고, 아래 뒷면의 글씨에 따라 단면형, 양면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활자의 용도에

3) 인쇄기술사와 서적교류사를 살펴보는 장에서 모두 22개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비슷한 유형으로 둘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묶었기 때문이다. 모두 27종의 서적이 22개 항목에 포함되었다.

따라서는 陰刻이나 連刻活字, 기호형태, 어미 등이 있고 특별한 경우 봄통 가운데 구멍을 뚫어 좌우나 상하로 흔들림을 줄이는 형태도 있다.

활자 조립판의 조립 방법에 따라 활자를 밀랍에 붙이는 부착식, 밀랍을 사용하지 않고 정방형의 활자를 만들어 파지나 자간박기 등으로 고정하는 조립식이 있으며 변란과 계선의 연결상태에 따라서 일체식과 분리식 또는 고정식과 맞춤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조판의 방식이 초기 인쇄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판형의 크기, 동일판형의 빈도 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시 책의 인쇄에 동원된 물자의 규모나 장인의 수 등의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규장각 총집류 서적 중에 초기 금속활자 인쇄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간행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조선초기부터 『文章軌範』, 『古文眞寶』 등과 함께 널리 애독되던 책으로 송나라眞德秀(1178-1235)가 문장의 모범이 될 만한 글들을 모은 책이다. 조선전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앙에서 금속활자로 공간되었다. 이 시기 산문 연구 및 문장선집 연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며 규장각에는 초기의 금속활자로 1420년에 주조한 경자자와, 1484년에 주조한 갑진자로 인쇄된 것이 남아있다. 경자자본은 권 1, 5, 8의 3책과 가람문고본으로 권 4-7 2책이 남아있으며, 갑진자본으로는 17책이 전한다. 경자자본은 세종 10년(1428) 11월 경신일에 경연에 나아가 좌대언에게 “文章正宗과 楚辭 등의 서적은 공부하는 사람은 불가불 알아야 하니 鑄字所로 하여금 이를 印行하게 하라”고 하였고 이듬해 8월에 인출하여 완성한 것이다. 특히 경자자본에는 “經筵”, “內賜”를 비롯하여 “正心守分”的 입장이 날인되었는데, 청분실서목에 언급된 세종 11년(1429) 경자자 간본 권18·19와 한질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권 8-9, 권12, 권13, 권14-15의 4책이 남은 고려대 만송문고와도 한질을 이루는 책이다. 또한 “經筵”, “內賜”的 입장은 각각 경연에 쓰인 책이라는 것과 초기 내사본의 입장으로 여겨지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詳說古文眞寶大全』

『詳說古文眞寶大全』은 조선 문종때의 경오자 간본이다. 세종32년(1450)에 安平 大君 璐이 쓴 글씨를 바탕으로 주조한 활자로 인출한 것이다. 성종실록 권49 5년 11월 계유조에 ‘우부승지 金永堅이 말하기를 “지금 어떤 주자자를 사용하여 책을 인출하는가?”하자 대답하기를 ”갑인 을해자 양년에 주자한 글자입니다. 하지만 인출한 책은 경오자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璐이 쓴 것은 이미 훼손되어 강희안에게 그것을 쓰게 하여 주조해 만들었는데 을해자가 이것입니다.”하였다. 『청분실서목』에는 규장각에 권1의 25장만 남은 가람문고본이 분책된 경위를 알게 해 주는 기록이 있다. 즉 “기묘년에 가람 이병기 선생께서 처음 이 책 권1, 1책(천하에 유일본이다)을 얻었다. 임오년 봄에 내가 고향에 돌아 갈 때 선생께서 두 책으로 나누어 그 下冊을 내게 주셨다.”⁴⁾고 하여 규장각본이 그 上冊임을 알 수 있다.

3) 『文翰類選大成』

『文翰類選大成』은 총 163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본래 명나라 李伯璵가 正統년간(1439-1449)에 淮王 邵銓의 명을 받아 편집하고 동시대 馮厚가 교정하여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조선에 전해져서 성종15년(1484) 갑진년 이전에 을유자로 간행하였다. 권수제 다음 행에 ‘左長史上海李伯璵編輯’을 그 다음 행에 ‘紀善慈谿馮厚校正’이라고 표시하였으며 前代부터 明代까지 시대별로 역대의 문장을 뽑아서 엮었다. 성종 17년 병오 12월 을해조에 ‘새로 인출한 문한류선을 문신에게 반사하였다.’라고 한 기록으로 이 책의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성종 17년 이전임을 알 수 있는데, 을유자의 사용시기가 갑진자의 주조이전일 것이므로 최소한 갑진자 주조시기인 성종 15년(1484) 이전에 책의 간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완질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국내외 주요 소장처에 결락본으로 남아 있으며 일본 내각문고에 남은 69책이 가장 많다. 규장각에는 4종의 을유자본이 있

4) 李仁榮, 『淸芬室書目』歲己卯加藍李秉岐先生始得此書卷一一冊(..天下之孤本也)壬午春余將還鄉也先生分爲二冊以其下冊惠余以

는데, 그 중에 敵愾功臣 張末孫(1431-1486)과 단양우씨의 소장인이 날인된 3책을 제외하고 가람, 일사, 상백문고에 각 1책 씩 전해진다.

4) 『西漢文鑑』

西漢의 散文 중 정사에 귀감이 되는 문장을 선별한 문선집으로, 1冊 82張의 乙酉小字本이다. 금속활자인본으로 을유자본은 그 사용기간이 짧아 인본의 전래가 매우 드문 편이다. 더군다나 小字로만 간행된 경우는 이 책과 『六經合部』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1484년 갑진자 주조 이전에 간행된 책이며 卷末의 半葉이 落張 상태이다.

5) 『文選』

『文選』은 梁나라의 昭明太子가 秦, 漢 이후 齊, 梁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은 책으로, 130명 400여 수의 시와 300여 편의 문을 수록하였다. 고려시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는데, 조선전기의 간본으로 비교적 많은 종류의 금속활자본이 남아있다. 금속활자본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경자자본이며 세종이 활자로 간행한 『문선』을 종친과 문신에게 내렸다는 기록⁵⁾은 경자자본을 두고 한 말이다. 그 다음이 갑인자 인본인데 이는 성종시기의 것과 중종시기의 것으로 구분된다. 성종 시기의 것은 비교적 드물고 대부분 중종시기의 초주갑인자 인본으로 국내에 남아 있다. 규장각의 『문선』은 중종시기의 초주갑인자본이 상백문고에 2책, 가람문고에 1책이 전한다. 이 책의 번각본으로 1509년에 영남에서 姜渾이 주관하고 黃王筆이 발문을 작성한 책이 남아있다.

6) 『東文選』과 『東文選啓抄』

『東文選』은 성종이 중국의 『文選』과 비견할 만한 우리나라의 시문선집을 편찬

5) 『世宗實錄』 卷50, 世宗 12年 12月 丙子

할 것을 명하여 간행한 책이다. 당시 대제학이던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 노사신, 강희맹, 양성지 등 23인이 참여하여 1478년에 을해자로 본집 130권 목록 3권의 방대한 규모로 간행하였고, 얼마 뒤 을해자본을 번각하여 목판본으로도 간행하였다. 또 중종 13년(1518)에는 申用灝, 南袞 등이 『동문선』에 수록된 내용들을 刪補하여 23권 11책의 『續東文選』을 간행하기도 했다. 이 때 함께 동문선의 재간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을해자인본으로 남은 『동문선』은 성종시기인 1478년 간본과 중종시기인 1518년 간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전하는 것은 1518년 간본이 대부분이다. 1478년 간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 만송문고에 일부 남아있으며 『청분실서목』에도 언급되어 있다.

『고사촬요』에 의하면 임란이전 金海에 책판이 보관되어 있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전에 간행한 서적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자 1615년 서적교인도감에서 훈련도감자로 다시 간행하기도 하였다.⁶⁾ 국내에는 을해자인본으로 완질본이 없고 일본 존경각, 내각문고, 봉좌문고 등에 중종년간의 을해자본이 각각 완질로 남아있다. 규장각에는 중종연간의 을해자 간본으로 권7~8, 11~13, 16~17, 22~23의 4책만 전해지는데 그 밖에도 여러 판본의 『동문선』이 있지만 조선전기에 을해자 번각본이 2종정도 이고 대부분 조선후기 훈련도감자본이거나 그 번각본이다.

『東文選啓抄』는 『東文選』에서 金垣, 林宗庇, 崔致遠, 林春, 成三問, 張玉, 羅世纘 등이 저술한 계문을 가려뽑아抄集 간행한 목판본이다. 판본을 開刊한 기록이 표시되고 있지 않지만 1568년에 간행한 『고사촬요』에 그 책판이 평안도 中和에 수록되어 있어서 16세기 중반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판본이 일본 봉좌문고에 1책 남아있다.

7) 『皇明正嘉八才子文抄』

‘皇明正嘉八才子’는 正德, 嘉靖年間의 명나라 문인 8명(徐禎卿, 唐寅, 王廷陳, 黃省曾, 田汝成, 陳東, 袁袞, 皇甫汸)을 뜻한다. 『皇明正嘉八才子文抄』는 이들의 산문

6) 『光海君日記』 卷97, 光海君 7年 11月 戊子

을 모아 싣고 張治道 등 7명의 글을 부록으로 삼아 간행한 책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을해자인본으로 16세기의 간본이다.

8) 『賦選』

『賦選』은 乙亥字의 小字만으로 印出된 책이다. 내용은 科試에 쓰이는 賦를 모은 것으로 各 賦의 제목과 작자를 쓰고 그 내용을 쓰는 방식으로 나열하였다. 국내에 전하는 책 중에 乙亥字小字本으로 알려진 판본은 주로 科試를 위한 학습서로 남아 있으며 『어시책』, 『통감론』 등 겨우 몇 종만 파악되고 있다. 같은 書名의 동일한 板本이 영남대도서관 미산문고에도 1종 소장되어 있다.

9) 『唐詩品彙』

명나라 高棟이 편찬한 것으로 조선전기에 갑진자로 간행한 적이 있는 거질의 책이다. 규장각에는 갑진자 인본으로 일사문고본과 상백문고본으로 각각 1책 씩 남아있다. 『清芬室書目』에는 『당시품휘』의 판본으로 卷首, 권2~3 및 권62~66의 3책이 언급되어 있다. 권수에는 洪武 辛巳年 馬得, 華王과 乙亥年 林慈, 癸酉年 高棟 등이 작성한 네 개의 序文이 있고 이후로 引用諸書, 歷代名公序論, 凡例, 詩人爵里詳節, 總目이 차례대로 수록된 것이 확인된다.⁷⁾ 이 책은 성종 5년(1474)에 간본이 나왔고 다시 명종년간에 번각되기도 하였다.⁸⁾ 이수광(1563-1628)은 『唐詩品彙』 중 뛰어난 것을 선별하여 『唐詩彙選』을 엮어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
- 7) 李仁榮, 『清芬室書目』唐詩品彙殘本 七卷 首一卷三冊 明宗宣祖年間 甲辰字印本 存卷首二三及六十二至六 首有洪武辛巳馬得華王洪武乙亥林慈 洪武癸酉高棟四序 次引用諸書 次歷代名公序論 次凡例 次詩人爵里詳節 次總目 每卷首題 唐詩品彙卷之幾 次行新寧高棟編 四周雙邊 有界 每半葉十二行行十九字 匡郭長二〇.五. 廣一五.五. 黑口
- 8) 이 책의 간행경위를 포함하여 전반적 唐詩選集의 편찬흐름은 이종묵, 2002 「詩風의 變化와 中國詩選集의 編纂 양상」,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497-517면의 내용이 많은 참고가 된다.

10) 『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

『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은 南宋代 학자 迂齋 樓昉이 편찬한 고문선집으로 先秦부터 송대이전까지의 명문을 수록한 책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1535년 이전에 간행된 丙子字 인본으로 전체 11책 중에 권2, 권16~18, 권23~25 등이 결본으로 8책만 남은 것과 권 3~6의 1책만 남아있는 상백문고본이 있다. 간행시기는 개인소장본 중 중종 30년(1535) 9월에 姜應台(1495~1552)에게 반사한 내사본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규장각 총집류 서적 중에 초기 금속활자인쇄의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는 책은 경자자본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경오자본 『詳說古文眞寶大全』, 을유자본 『文翰類選大成』, 을유자소자본 『西漢文鑑』, 갑인자본 『文選』, 을해자본 『東文選』과 『皇明正嘉八才子文抄』, 을해자소자본 『賦選』, 갑진자본 『唐詩品彙』,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 병자자본 『迂齋先生標註崇古文訣』 등이다. 대부분 15세기에 주조된 활자로 인쇄된 책으로 다양한 초기 금속활자인본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경자는 세종 때 처음으로 주조한 금속활자로 조선초기의 인쇄사를 복원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치를 지닌다. 규장각에는 총집류의 『西山先生眞文忠公文章正宗』이 있고, 총집류 외에도 『重新校正入註附音通鑑外記』, 『資治通鑑綱目』, 『漢書』, 『新箋決科古今原流至論』 등이 경자자본으로 확인된다. 이 활자는 이전에 제작한 계미자의 모양이 가지런하지 못하고 글자면이 거친 탓에 인쇄 도중 흔들림이 잦은 것을 해결한 활자이다. 세종 2년(1420)에 주조하기 시작해 7개월 걸려서 완성하였으며 하루에 인쇄할 수 있는 분량을 대폭 늘릴 수 있었다. 국내외에 현존본으로 남은 경자자 인본을 좀 더 조사해보면 24종 이상이 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규장각 소장의 경자자 인본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重新校正入註附音通鑑外記』는 중국 송나라 劉恕가 편찬한 『通鑑外記』와 함께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目錄』, 『通鑑釋例』 등이 섞여 있는 책으로 모두 庚子字로 찍혀졌다. 『通鑑外記』는 본래 1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周 威烈王 23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고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目錄』은 『通鑑節要』의 목록이며 『通鑑釋例』는 『資治通鑑』을 편찬할 때 마련한 범례를 다룬 것이다. 현재 이 책은 零本으로 『通鑑外記』의 경우

卷1~2와 목록이 남아 있다.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3.0cm, 가로 15.2cm이며 11行 21字이다. 版心은 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다. 『資治通鑑綱目』은 남송의 주희가 북송의 사마광이 편찬한 『資治通鑑』 294권을 저본으로 59권으로 편찬한 강목체 史書로, 15세기초인 1428년경 조선에서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자치통감강목』의 경자자본은 2종이 현전하는데 11행 21자본계열과 11행22자본 계열로 나뉜다. 규장각소장본은 11행 21자본계열이다. 경자자본 간행이후에도 최초의 鉛活字인 丙辰字로 綱을 인쇄하고 目과 주석은 초주 갑인자로 인쇄한 책이 발간되었으며 이는 세종 20년(1438)간행의 병진자본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11행21자본 계열의 경자자본 완질이 중국 상해도서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국내에 동일한 인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청주고인쇄박물관, 호림박물관, 개인 소장본 등이 있다. 『漢書』는 중국 後漢班彪, 班固 등이 편찬한 역사서로 漢 高祖 元年(B.C.206)에서 新 王莽 地皇4년(23)에 이르기까지 12代 229年間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撰者는 일반적으로 班固로 알려졌지만 班固를 비롯한 班彪, 班昭, 馬續 등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本紀, 表, 志, 列傳을 포함해 모두 100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일부가 여러 편으로 나누어져 총 120편으로 되었다. 규장각에는 卷34 零本 1冊이 전해지고 있는데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2.8cm, 가로 13.9cm이며 11行 21字이다. 版心은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다. 『新箋決科古今原流至論』은 중국 송나라의 林嗣이 편찬한 類書로 모두 13卷 5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에는 零本으로 권1과 일부 낙장본이 전해지고 있는데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22.7cm, 가로 14.8cm이며 11行 21字, 版心은 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로 다른 경자자 인본과 거의 같다.

경자자는 갑인자가 주조되기 전까지 약 14년간 사용되었다. 小字로 인쇄한 『類說經學隊仗』(1책, 국립도서관 소장본),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經疑』(1책, 국립도서관 소장본)를 제외하고 11행 21자(자치통감강목 일부는 22자)의 동일한 판형을 지니는데 아직까지 다양한 크기의 조판틀을 활용하는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1434년 이후 갑인자가 주조되고 새롭고 다양한 크기의 조판틀이 만

들어지면서 의미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낸다. 즉 활자에 맞추어 판틀을 새로 주조하였고 보다 해정하고 가지런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존하는 경자자의 인본이 계미자에 비하여 글자의 어긋남이 거의 없이 보다 우수하게 된 것으로도 확인된다. 또한 판짜기에서도 소자로 찍힌 16行18字本을 제외하고 대부분 11行 21字로서 광곽의 크기가 일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갑인자는 앞서 주조한 경자자의 글자체가 너무 작아 독서에 불편함을 겪자 좀 더 큰 형태의 금속활자로 세종 16년(1434)에 만든 것이다. 중앙관서에서 만든 금속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많은 인본들을 간행하였다. 또한 이 활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 18세기 말 丁酉字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차례나 주조되었다. 규장각 총집류의 『文選』은 초주갑인자가 주조되고 약 100여년이 지난 중종대에 간행된 책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활자의 모습과 조판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경오자는 문종 즉위년(1450) 7월 4일 이후부터 같은 해 10월 28일 이전에 주조한 활자이다. 세조 원년(1455)에 을해자를 주조할 때에 녹여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오자의 사용은 6년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인본은 극히 드문 편이다. 현재까지 경오자본으로 알려지고 있는 책은 『古今歷代兵要』, 『古今歷代十八史略』, 『詳說古文眞寶大全』, 『新編纂學啓蒙』 등이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일본에 남아있고 국내에는 겨우 『詳說古文眞寶大全』의 殘卷과 『新編纂學啓蒙』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규장각의 『詳說古文眞寶大全』은 국내에 약 5종정도 남아있는 『詳說古文眞寶大全』 경오자본 중에 하나이다.

그 밖에 조선전기의 금속활자본으로 그 전래가 드문 것으로 초기의 을유자소자본, 을해자소자본 등이 있다. 이는 小字의 조판기술과 판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이와 같이 몇몇의 사례를 보듯이 총집류 서적은 금속활자인쇄의 기본공정인 주조, 조판, 인쇄의 기술사적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서적교류사적 가치

조선초기에는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명나라가 초기부터 시행되어 온 海禁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적의 수입이 용이하지 않았다.⁹⁾ 그 때문에 기존의 宋, 元刊本 및 이들을 저본으로 번각된 많은 서적들이 조선전기의 서적 유통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수입된 중국간본은 원본 그대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조선간본으로 다시 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간본의 조선간행은 麻刻과 重刊으로 그 유형이 구분된다. 조선 초기에 유통된 중국간본은 중국간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그대로 번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중국간본의 판형을 유지하되 새롭게 중간하는 경우와, 처음에는 중국간본을 그대로 번각하였다가 새로운 금속활자가 제작되면 해당 활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판식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¹⁰⁾ 규장각 총집류 서적 중에도 이와 같은 조선전기 중국과의 서적교류사를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몇 가지 책이 남아있다. 이를 구분해보면 중국식 조선간본과 조선의 독자적 간본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식 조선간본을 규장각목록에 기재된 주제별 순서에 따라 나열해보면 1) 『唐詩五言律句三體家法』부터 8) 『楚辭』 와 『楚辭後語』 까지 이고 조선의 독자적 간본은 9) 『風騷軌範』부터 12) 『東國莊元集』 까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唐詩五言律句三體家法』

송대의 周弼에 의하여 편찬된 것을 원대의 승려 圓至가 주석을 달고 이에 다시 裴庚가 주를 보충한 근체시 중심의 詩 作法書이다. 현재 국내외에 결락본이 일부 분만 남아있으며 增註唐賢絕句三體詩法, 唐賢七言律詩三體家法, 增註唐賢七言律詩三體家法, 增註唐詩五言律句三體家法, 등의 다양한 서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를 3권으로 구성하고 絶句와, 七言, 五言 등으로 구분하여 권차마다 서명을 정했기 때

9) 중국 송·원시대는 발달된 상업출판문화를 바탕으로 서적유통의 황금기를 이루었고 명대에는 초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15세기 중반 이후로 다시 활발하게 된다.

10) 육영정, 2009.10 「元刊本의 조선간행과 유통」, 『동아세아출판문화연구 국제학술회의 강연·논문집』,

문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첫 권의 권차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제2권의 권말제가 增註唐賢七言律詩三體家法이고 제3권의 권수제가 增註唐詩五言律句三體家法이다. 국내에 개인소장본, 영남대, 충남대, 일본 국회도서관, 가천박물관 등에 권1이 소장되어 있다. 개인소장본 권3의 말에 수록된 정인지의跋문에 의해서¹¹⁾ 세종18년(1436) 경연에 소장된 善本을 내려주며 간행하기를 명하여 수개월내에 청주목에서 완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규장각 소장본은 청주 간본 이후에 임진왜란 전까지 여러 차례 간행된 판본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2)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는 송나라 黃堅이 戰國時代부터 宋代까지의 詩文과 體法을 알기 쉽도록 편찬한 詩文選集으로 元代의 林楨이 교정, 주해하였다.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에 田祿生이 元간본을 바탕으로 刪增하여 合浦에서 간행하였고, 조선전기에는 세종 2년(1420)에 충청도 沃川에서 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상설고문 진보대전』으로만 유통되었다. 규장각 소장본은 옥천에서 간행한 것으로 원나라 간본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다. 동일한 판본으로 국립도서관에 권7-10의 1책이 소장되어있다.

3) 『北京八景圖詩』

『북경팔경도시』는 鄒緝 등이 북경 주변의 명승지 8곳을 둘러보고 지은 시를 모아 편찬한 1책의 목판본이다. 권수에 1412년에 쓴 호광의 서문이 본문 10行20字와 다른 7行13字의 판식으로 있고, 권말에는 楊榮이 쓴 題後와 1431년 曾棨가 쓴跋문이 있다. 호광의 서문에 따르면, 북경은 이전에 문인들이 유람하고 시를 읊은 장소였는데, 도읍이 된 뒤 천자가 두 차례 巡狩하자 翰林侍講으로 있던 추집이 당시

11) 이 책에 대해서는 남권희, 1997. 가을 「增註唐賢七言律詩三體家法의 판본문제」, 『문헌과 해석』 창간호, 189-198면에 보다 자세하며 『삼체시』의 내용과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박정교, 1999 「삼체시의 실체와 국내적 수용」, 『대동한문학』 11집이 많은 참고가 된다.

호종했던 신하들에게 이곳에 대한 시를 지어 남기기를 제안하였고, 13인이 참여하여 모두 112수가 완성되었는데, 이 원고를 張光啓가 정리하여 1책으로 완성하였다고 한다.¹²⁾ 규장각 소장본은 명판본을 그대로 번각한 목판본으로 1499년 경주부에서 부윤 任從善에 의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고사촬요』에도 경주에 이 책판이 남아있었던 기록이 있다. 본래 이 책에는 권두에 편제면이 있었지만 규장각본에는 결락된 것으로 보인다. 편제면에는 “靜觀書院新刊”라는 기록이 있어서 명초기에 이 책이 간행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간행된 책에도 당시의 편제면을 그대로 판각해두고 있어서 서적교류사적 의미가 있으며 또 다른 소장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이 있다.

4) 『選詩』

『選詩』는 원나라 劉履가 『文選』에 다수의 시를 더하고 주석을 붙여 15권으로 1361년 간행한 책으로 『風雅翼』, 『選詩補註風雅翼』이라고도 한다. 이 책의 구성이 『選詩補注』 8권 7책, 『選詩補遺』 2권 1책, 『續編』 5권 2책으로 되어 있어서 결락본 일 경우 전체 책 수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후기초주갑인자로 간행된 15권 10책 완질본이 장흥의 岐陽祠, 일본 봉좌문고 등에 남아있고 일본의 내각문고에도 권6의 1책이 결본인 9책이 남아있다. 특히 岐陽祠 소장본은 1553년에 弘文正字이던 白光弘(1522~1556)에게 반사된 책이며,¹³⁾ 봉좌문고본은 安邦慶(1513~1569)에게 같은 해에 반사된 책이다.¹⁴⁾ 岐峯 白光弘의 문집인 『岐峯集』 「冬至」에 ‘1552년 11월에 임금께서 문신들에게 명하여, 성균관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공이 賦를 지어 장원하였고, 임금께서 『선시』 10권을 하사하였다.’¹⁵⁾라는 기록이 있어 당시 『선시』

12) 김호, 2005 「朝鮮刊本『北京八景詩集』研究」, 『한문교육연구』, 제25집, 700-708면.

13) 이 책의 서지적 특징과 간행경위에 대해서는 박철상, 2004 「白光弘 内賜本『選詩』의 書誌的 의미」, 『韓國學論集』 제38집, 175-189면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14) 千惠鳳, 2003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 지식산업사, 『選詩』.

15) 白光弘, 『岐峯集』 卷1, 「冬至」嘉靖壬子登科, 其年十一月, 上命嶺湖文臣, 較藝于泮宮, 公以此賦居魁, 御賜選詩十卷

가 간행되고 반사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임란이전에 목판으로 간행된 것은 책판이 성주에 소장되어 있었다. 규장각 소장본은 활자본과 내용이 같지만 판식이 다른 10행 16자의 목판본으로 1책만 남아있다. 동일한 판본으로 고려대도서관에 15권 9책이 전해지며 이는 조선전기 배삼익(1534-1588)의 구장본이다.

5)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은 원나라 于濟가 아동들의 作詩 학습을 위해 든 책을 『詩林廣記』의 편찬자인 蔡正孫이 증보하고 시에 해석을 달아 20권으로 편집하여 1300년경 간행한 것이다. 조선전기에 문인들의 참고 학습서로 『瀛奎律髓』와 함께 많이 읽혀졌다. 초주갑인자인본이 국회도서관에 권6-10 1책, 그 밖에 개인소장으로 전해지는데, 규장각 소장본은 목판본으로 권 6-12의 2책이 남아있다. 표지배첩문서에 기록된 1549년의 고문서에 의해서 그 이후 수년이 지난 시점의 인쇄본으로 추정한다. 국내에 동일한 판본이 여러 소장처에 흩어져서 남아있으며 국외에는 북경대학 도서관에 10책이 남아있다. 판식이나 글자의 배열이 매우 유사하지만 금속활자본이 9행 18자인 반면 목판본은 9행 17자본으로만 전해진다. 『淸芬室書目』에서는 연산군~중종 사이의 목판본과 연산군대의 갑인자본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增註』를 들고 있으나¹⁶⁾ 모두 9행17자본으로 기록하고 있다. 활자본과 목판본의 원문대교를 통해서 보다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疊山先生批點文章軌範』

『疊山先生批點文章軌範』은 앞서 살펴본 『文章正宗』, 『古文眞寶』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힌 古文選集 중 하나이다. 송나라 謝枋得이 漢 때부터 宋까지의 문장들 중 과거공부를 위하여 모범이 될 만한 글 69편을 뽑아서 7권 2책으로 만든 책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16세기 중엽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수험

16) 李仁榮, 『淸芬室書目』,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增註 殘本 六卷 二冊 燕中間刻本,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增註 殘本 三卷 一冊 燕山朝 甲寅字刊本.

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 간행지역도 비교적 많은 곳에서 드러난다. 임란이 전에 간행된 『고사촬요』의 기록에 따르면, 洪州, 全州, 羅州, 榮川 등에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다.

7)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古賦』,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對策』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은 元代의 유학자 劉霖 등이 편찬한 것으로 후에 원나라 劉貞이 이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새로 간행한 것이다. 원대에 실시한 江浙鄉試, 江西鄉試, 湖廣鄉試의 應試文과, 中書堂 會試에서 제출한 우수한 답안을 對策, 經疑, 古賦의 3문체로 분류해서 편찬하고 문체별로 다시 과거시행시기별로 三場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규장각 소장본은 경자자본의 번각본으로 1454년경 경상도 밀양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對策이 2종 古賦가 1종 남아있으며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古賦』의 책 말미에 1454년 작성한 발문과 ‘甲戌八月日密陽府開刊’ 간기 및 도관찰출척사 이승지 등 간행자의 관함이 수록되어 있다.

8) 『楚辭』와 『楚辭後語』

초나라 屈原과 그의 문인, 후인들이 지은 작품을 漢代 劉向이 모아 엮어낸 것으로 周나라 荀卿에서부터 송나라 呂大臨에 이르는 총 52편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자자로 처음 이 책이 간행되고 난 후에 밀양에서 1454년에 번각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후로도 번각을 거듭하면서 비교적 많이 인쇄하였기에 후쇄본도 많고 국내외 주요 소장처에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책이다. 규장각에도 여러 간본이 남아있다. 그 중에 가람문고와 상백문고본 각각 1책과 청구기호 고 895.1133 J868c 1책이 이른 시기에 간행된 책으로 임란이전의 판본이다. 『清芬室書目』에는 단종 2년(1454)에 밀양에서 雕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都觀察黜陟使 李崇之 등이 甲戌 5月 密陽府에서 開刊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과 함께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9) 『風騷軌範』

『풍소궤범』은 成倪(1439~1504)이 權健, 安琛, 金昕, 李昌臣, 曹偉, 申宗濩 등과 함께 편찬하여 성종 15년(1484)에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전집 16권, 후집 29권, 총 45권 14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중국 한나라 시대부터 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古詩들을 총집해 놓은 것이다.¹⁷⁾ 이전에 간행된 중국 번각본 『瀛奎律隨』나 『聯珠詩格』과 달리 조선의 독자적 간본으로 매우 의미있는 목판본이다. 이 책의 완질은 광산김씨 後彫堂에서 소장했던 16세기 간본이 성균관대 준경각에 남아있으며¹⁸⁾ 규장각 소장본은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 일사문고와 가람문고에 각 1책씩 남아있다.

10) 『十抄詩』와 『夾注名賢十抄詩』

『十抄詩』는 신라의 崔致遠, 朴仁範, 崔承祐, 崔匡裕의 시 40수와 당나라 문인 26인의 칠언율시 각 10수씩 총 300편이 수록되어 있는 시선집이다. 특히 崔致遠의 시 6수, 朴仁範, 崔承祐, 崔匡裕의 시 30수는 『십초시』에서만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국의 佚詩 또한 100여 편이 수록되어 있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책이다.¹⁹⁾

한편, 『협주명현십초시』는 『십초시』 이해를 위해 고려말 釋子山이 주석을 붙인 책이다. 현전본은 단종 1년(1452) 중간본으로서, 이 때 進士科가 다시 실시되자 1337년 안동부 간행본을 저본으로 밀양에서 중간한 것이다. 즉 『십초시』와 『협주명현십초시』는 문학사적으로 유의미한 작품이 한국한시사의 시기별로 특별한 계기

17) 이종목, 2002 「成倪 擬古詩의 形式美와 主題 表出 양상」,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 태학사, 269면.

18) 임형택, 2007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118-129면.

19) 『十抄詩』 및 『夾注名賢十抄詩』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는 임형택, 2009 「夾註名賢十抄詩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14-19면에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으며, 扈承喜의 「十抄詩一考」, 『書誌學報』 제15호 1995) 이후 국내를 비롯한 중국에서도 이 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에 의해 선발되고, 주석이 덧보태지고, 중간된 것이다. 1452년에 權思復이 진사시 험을 준비하면서 필사해 놓은 것을 저본으로 하고 權擊의 교정을 거쳐 밀양부사 李伯常과 李繫이 중간하였다. 규장각본은 밀양에서 판각한 책으로 동일한 판본인 양동마을의 경주손씨가 소장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위탁보관되어 최근에 영인되기도 하였다.

11) 『晉山世稿』와 『鐵城聯芳集』

『晉山世稿』는 姜希孟(1424~1483)이 조부인 姜淮伯(1357~1402)과 부친 姜碩德(1395~1402), 형 姜希顏(1417~1464) 등 3대에 걸친 시문들을 모아 1478년에 초간한 책으로 권4의 『養花小錄』으로 더욱 잘 알려진 책이다. 申叔舟, 崔恒, 鄭昌孫의 서문과 金宗直, 徐居正 등의跋문이 수록되어 있다. 국내 현존본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은 보물 1290호로 지정된 개인소장본과 국립박물관 송성문기증본이다. 규장각 소장본 중에 조선 전기 간본으로 추정되는 것은 <규 6691> 1종으로 16세기에 다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鐵城聯芳集』은 平齋 李岡(1333~1368), 容軒 李原(1368~1430) 부자의 詩集으로 鐵城 李氏의 후손인 李陸(1438~1498)이 1476년에 처음 간행한 책이다. 서문은 서거정, 李陸, 鄭麟趾가 썼으며, 柳允謙, 尹壕叔과 후손 李保가跋문을 지었다. 조선 전기본으로 15세기의 초간본이 있고 초간본과 동일한 판식으로 본문을 번각하여 16세기에 간행한 목판본이 있다. 16세기 번각본은 정인지의 서문 1장을 2장으로 조정하여 총77장이고 권수의 族譜圖 제목표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규장각 소장본은 초간본을 번각한 16세기 인본으로 그 전래가 드문 편이다. 초간본은 계명대 도서관본이 알려져 있고 근래에 영인되었다.

12) 『東國莊元集』

『東國莊元集』²⁰⁾ 1책은 그 전래가 드문 임란이전 목활자로 간행된 조선의 과거

20) 책의 서명은 『東國壯元集』이 옳은 표기이지만 규장각소장 목활자본의 권수제는 『東國莊

시험 답안 모음집이다. 16세기 초인 1512년 이전에 치러진 과거답안으로 金驥孫의 “正統”, 南衰의 “西征” 등 당시 과거에서 장원한 대책문 총 17편이 포함되었다. 판심제에 “丙”이 표시된 것은 이 책과 함께 甲集과 乙集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서 본다면 서명이 조금 차이나지만 판본, 판식이나 내용체제가 같은 『東國壯元策』 갑집, 을집과 동일한 주체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간행된 책일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규장각 총집류 서적 중에 1) ~ 8)까지의 책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이후에 다시 조선에서 번각되거나 중간된 책들이다. 특히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조선간행 중국 시문집들은 대부분 송원을 포함한 명초기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간행되는 경우로 총집류 중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北京八景圖詩』,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真寶』, 『唐詩五言律句三體家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시문집으로 금속활자로 간행된 책들은 새롭게 중간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책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판본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여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²¹⁾

규장각 총집류 중에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도 이러한 사례 중의 하나다. 이 책의 유통은 고려말과 조선초에 있었던 과거시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經疑, 古賦, 對策은 고려 충목왕 원년(1345) 8월에²²⁾ 초, 중, 종 삼장으로 시험치도록 고친 것으로 보아 이 때에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의 유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단종 때에도 명의 사신들이 명륜당에 나가 성균관 수재들과 경전에 대해 강론하는 과정에서 사신이 글의 체제가 元朝의 士習이 있는 것 같다고 하자 李邊

元集』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목활자 조판과정에서 빗어진 오류로 보인다. 이 책을 읽은 책 주인은 오류를 바로 잡기위해 “莊”자의 “+”를 먹으로 칠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오류가 있는 서명을 이 책의 서지적 특징으로 보고 그대로 표기하였다.

21) 총집류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례는 태종 때 계미자로 인쇄되었다가 세종 13년(1431)과 단종 1년(1453)에 각각 다르게 번각되기도 한 『音註全文春秋括例始末左傳句讀直解』, 태종 15년(1415)에 원刊本을 번각한 후에 세종 21년(1439)에 초주갑인자로 인출되는 『新刊音點性理群書句解』, 세종연간에 경자자로 인출하고 후에 다시 이 경자자를 번각하여 간행하게 되는 『新箋決科古今原流至論』 등을 꼽을 수 있다.

22) 『고려사』, 권73 지 제27.

(1391-1473)이 말하기를 “유생은 원조의 三場文選의 文範을 보고 지은 까닭에 서로 비슷합니다.”하였으므로²³⁾ 당시에 과거시험을 대비한 학습서로서 가장 많이 유통된 서적 중의 하나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의 간본은 원至正元年(1341) 유정의 서문이 있는 원판본이 현재 일본 정가당문고 남아있다. 전래하는 판본을 토대로 추정하면 조선시대 판본은 태종초 癸未字小字本, 세종초 경자자본과 경자자소자본, 단종 2년(1454) 밀양에서 간행한 경자자변각본과 그 이후의 변각본 등으로 조선초에는 비교적 빈번하게 간행되었다. 經疑, 古賦, 對策이 한질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명나라 간본으로 1486년에 조선에서 을유자로 간행된 『文翰類選大成』은 성종 11년(1480) 4월에 奏聞使 魚世謙이 북경에서 가지고 돌아와 진상한 책이다. 을유자는 세조 11년(1465)에 정난종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활자로 글자체는 편편하고 대체로 정방형인 것이 특징이다. 갑진자를 만들 때 녹여 쓰면서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 그 인쇄본이 몇 종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규장각에는 중국에서 간행된 明版本 『문한류선대성』 2종이 있는데, 모두 1473년(成化 9)에 간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처음 간행 이후에 조선에 전해져서 성종 때에 금속활자인 을유자로 다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종은 곧바로 이 책을 간인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하여 준비하였는데 가뭄과 흉년으로 바로 간행하지 못하다가 성종 17년(1486)에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성종 17년(1486) 12월 14일에, “새로 인쇄한 『文翰類選』을 文臣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사가²⁴⁾ 있으며 국내외에 결락된 상태로 여러 소장처에 흩어져서 전한다. 각 소장처와 소장본의 권차를 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3) 『단종실록』 2권, 원년(1452) 8월 23일조

24) 『성종실록』 17년(1486) 12월 14일조. 頒賜新印文翰類選于文臣.

〈표 1〉 을유자본 『文翰類選大成』의 소장처와 현황

文翰類選大成	成宗17 (1486)	13행 21자	1책(2장)		21.8×15.0 (29.8×19.5)	충남대
			1책	권22		청주고인쇄박물관
			3권1책	권105-107	22.0×15.2 (30.5×20.0)	성균관대 존경각
			1책	권111	22.0×15.3 (28.2×17.8)	국립중앙도서관
			1책(5장)	補遺	21.6×15.0 (28.4×18.7)	국립중앙도서관
			1책	권4 下	21.6×15.1 (28.5×16.8)	국립중앙도서관
			1책	권24	21.7×15.0 (27.6×18.0)	국립중앙도서관
			1책	권147	21.4×15.2 (27.5×18.7)	국립중앙도서관
			1책	권67-68	21.6×15.0 (31.0×19.7)	계명대
			1책	권48-49	22.1×15.0 (28.8×18.3)	규장각
			1책	권53-54	21.6×15.0 (30.4×20.0)	규장각
			3책	권9-16, 36-37, 139-142	22.0×15.2 (31.3×20.0)	규장각
			1책	권 148,151	22.1×15.0 (28.8×18.3)	규장각
			3권1책	권38-40	21.7×14.8 (29.0×18.8)	고려대
			30권13책	권25-34, 36-38, 40-42, 59-60, 73-74, 107-111, 132-136	21.8×15.1 (26.6×17.8)	성암고서박물관
			4권3책	권2-3, 59-60	21.8×15.1 (28.5×19.0)	성암고서박물관
			1책	권41-42	22.3×15.3 (26.4×18.5)	장서각
			69책	전77책 중 8책缺(권3, 4上, 15-19, 30-36, 46-49, 56, 85-87, 103-106, 110-111, 150-151)	21.7×15.2 (26.8×17.7)	일본 내각문고

『文翰類選大成』의 결락본을 모두 조사해본다면 불완전하지만 한 질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본 내각문고본은 李彥愼(1498-1553)의 장서임이 확인된다. 이들은 문헌의 유통과 장서관리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자료이다. 특히 규장각의 『文翰類選大成』 3책은 張末孫(1431-1486)의 장서로 추정할 수 있는 책이다. 인기에 [仁同張善餘], [景胤]이 날인되었는데 [景胤]은 적개공신 張末孫의 字이다. 매우 드문 15세기 장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²⁵⁾ 또한 실록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중종 7년(1512) 9월 6일에 홍문관에서 간직하고 있는 여러 책들을 바치게 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는 총집류 중의 『晉山世稿』가 포함되어 있다. 규장각 총집류 중의 『晉山世稿』에 날인된 [弘文館] 장서인은 실록의 기록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일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함께 기록된 다른 서책과 함께 현존본을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도 있다.

문헌의 유통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으로 변각본과 목활자에 의한 간행도 유의미하다. 목판으로 인쇄된 조선전기 총집류 서적으로 『초사』, 『신간류편 역거삼장문선』 등은 경자자 인본을 그대로 변각하여 간행한 책이다. 『신간류편역거삼장문선고부』 8권 2책으로 단종 2년 갑술(1454)년에 밀양부에서 경자자간본을 변각한 목판본임을 언급하였다. 발문과 ‘甲戌八月日密陽府開刊’ 간기 및 도판찰출 척사 이승지 등 간행자의 관함이 열서되어 있다. 발문내용을 요약하면 ‘감사 상국 이승지와 도사 공 이효장이 본읍에 『離騷』의 간행을 명하여 일이 끝날 즈음 부사 공 李皎然이 비용과 재료를 아까워하지 않고 목판을 더 준비하고 집에 소장된 1본을 내어 각판할 것을 권하였다. 수십일이 되지 않아 일을 끝마쳤다.’고 한 내용을 수록하였다.²⁶⁾ 즉 밀양부에서 『초사』를 간행할 때 함께 간행된 것이며 모두 경자

25) 규장각본 『文翰類選大成』 중에 권9-16의 1책에만 [景胤] 인을 확인할 수 있다. 권9의 목록 첫 장에 동일한 인장을 2번 날인하였다. [仁同張善餘]는 먹으로 날인하였으며 [景胤] 인의 날인 시기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26) 『淸芬室書目』, 新刊類編歷舉三場文選古賦 八卷 二冊 元劉仁初編 端宗二年甲戌 密陽府刊 覆庚字活字刊本 木板 四周雙邊 有界 十一行二十一字 注雙行 匡郭長二二.五釐 廣一五.七釐 黑口 末有景泰五年孫肇瑞跋 甲戌(1454)八月日密陽府開刊刊記 及都觀察黜陟使李崇之等刊刻者列銜 跋略云 監司李相國崇之 都事李公孝長 命刊離騷於本邑 功訖之際 府使公不惜費財

자로 간행된 책을 바탕으로 번각한 것이다. 이는 책의 번각이 지니는 문헌 유통의 구조적 상황과도 연결지어 더욱 폭넓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목활자인쇄는 나무를 조각하여 만든 활자를 가지고 인쇄하는 것으로 금속 활자인쇄에 비하여 보다 수월하고 경제적이었기에 조선후기 이후로 지방에서 비교적 많이 쓰였다. 금속활자와 함께 쓰인 경우도 있었으며 중앙기구보다는 민간에서 제작하여 문집이나 족보의 출판에 많이 사용된 여러 종류의 활자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목활자인본은 그리 흔치 않은 편이다. 규장각에는 조선전기 목활자로 印經字와 같이 왕실에서 주도하여 제작한 목활자 인본도 있지만 서적 중에 관아나 민간에서 주도하여 제작한 목활자 인본도 있다. 제작의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목활자 인본을 주제나 판형 형식 등의 조건으로 유형화를 시켜보는 방법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규장각 총집류 중 임란 이전에 간행된 목활자인본으로 『東國莊元集』이 있다. 주로 科舉를 대비한 학습서로서 쓰였으며²⁷⁾ 16세기에 『東國壯元策』, 『東人策選』, 『殿策精粹』, 『東策精粹』 등 의 책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와 주제적 배경을 지닌 것 들이다.

4. 결언 및 제언

문헌은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낸 지식의 유형화된 전달체제를 모두 일컫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을 생산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식을 개인 혹은 몇몇 집단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달하거나 영구히 보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생산하는 시기와 주체에 따라 그 배경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

加備板子 出家藏一本 劍工鋟梓 不數句 而告訖 按許筠續撰本攷事撮要 密陽冊板不載此書
而草溪冊板古賦者 所以移藏耶

27) 이 책을 비롯한 조선의 科文選集에 대해서는 박현순, 2015.3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 문화』, 69집 228-233면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가 담겨 있기도 하다. 따라서 규장각의 귀중본은 그 기준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기 다른 목적에 따른 기준을 서로 섞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귀중본의 모호함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²⁸⁾ 매우 합당하다. 본고에서는 이에 좀 더 나아가서 기본이 되는 몇 가지 기준, 예컨대 시기, 판본, 주제를 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 각 영역별 기준을 정하는 복합적 기준을 정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여러 기준 중에서 기본이 되는 간행시기에 우선적으로 기준을 잡고 인쇄기술사, 서적교류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서지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조선전기 간본의 판본에 대한 형태서지학적 논의에서 파악되는 것은 판식의 형태나 조판방법이 인쇄기술사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이시기의 판식이나 서체 간행방식 등등이 당시 인쇄문화 환경과 함께 어울려서 후대에 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서적교류사적 관점에서의 가치는 조선시대에 중국과 국가적 차원의 문헌교류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서 중국을 통한 문헌교류의 수용 양상과 소통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일부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서 조선전기에 번각된 중국간본의 간행방식과 그 유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간다면 고려 조선 시대 번각된 판본을 통하여 송원대 판본의 원형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간행의 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봄으로서 전통적 인쇄문화의 연구 범위가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전기 귀중도서에 대한 관리는 언제 등장할지도 모를 동종 이본이나 한 질을 이를 수 있는 동일판본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물론 자료 열람에 무조건적인 제한 두는 것이 아닌,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관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규장각 각 고문헌자료의 학술적 활용과 함께 귀중본의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個別 古文獻 履歷 Data Base”를 만들어

28) 김대중, 2013.1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귀중본 기준 수립을 위한 제언」, 『2013년 규장각 소장 귀중본 조사사업 워크샵 발표논문집』 16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우선 각 고문헌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된 학술논문, 해제, 그리고 동종이본에 대한 조사, 훑어져버린 완질본 조사 등등 관련된 내용을 보유하면서 해당 고문헌 스스로 학술적 가치나 귀중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논문투고일(2015. 4. 30), 심사일(2015. 5. 20), 개재확정일(2015. 6. 9)

참고문헌

- 김대중, 2013.1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귀중본 기준 수립을 위한 제언」, 『2013년 규장각 소장 귀중본 조사사업 워크샵 발표논문집』.
- 김호, 2005 「朝鮮刊本『北京八景詩集』研究」, 『한문교육연구』, 제25집.
- 남권희, 1997. 가을 「增註唐賢七言律詩三體家法의 판본문제」, 『문헌과해석』 창간호.
- 박정교, 1999 「삼체시의 실체와 국내적 수용」, 『대동한문학』 11집.
- 박철상, 2004 「白光弘 内賜本『選詩』의 書誌的 의미」, 『韓國學論集』 제38집.
- 박현순, 2015.3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 白光弘, 『岐峯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속3집, 한국고전번역원.
- 옥영정, 2009.10 「元刊本의 조선간행과 유통」, 『동아세아출판문화연구 국제학술회의 강연·논문집』.
- _____, 2013.9 「조선초기 금속활자 인쇄와 중국본의 간행」, 『동아시아 금속활자인쇄 술의 창안과 과학성 2차 학술대회발표논문집』.
- 李仁榮, 1993 『淸芬室書目』, (影印本), 보고사.
- 이종묵, 2002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 임형택, 2007 『우리 고전을 찾아서』, 한길사.
- _____, 2009 「夾註名賢十抄詩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 千惠鳳, 2003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 지식산업사.
- 玄英娥, 1987 「四部 分類法의 分析的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扈承喜, 1995 「十抄詩一考」, 『書誌學報』 제15호.

〈웹사이트〉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search/search01.jsp>)
문화재청(<http://www.cha.go.kr/index.html>)
유교넷(<http://www.ugyo.net>)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MAN/index.jsp>)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http://yoksa.aks.ac.kr/>)

Abstract

Bibliographic value of rare books in Kyujanggak of Collective Anthologies printed during the earlier period of Chosun Dynasty

Ok, Young ju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id the project on rare books in Kyujanggak and revolved around documents printed during the earlier period of Chosun Dynasty. Bibliographic value of the books was approached with two view point which are history of printing and books exchange according to purport of the project. Surveyed 27 kinds of Collective Anthologies printed by woodcut and type during the earlier period of Chosun and examined a few items that can add value on rare books in the bibliography.

Although there are the different criteria for adding precious value on the research about numerous old documents in Kyujanggak, the worth of the books have survived until now despite of looting and loss due to the big war should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In the study searched Collective Anthologies first because comprehensive organization by specific subject sector is not done. This approach will be helpful in continuous studying rare books on each topic selection.

Key words : rare books, Collective Anthologies, Kyujanggak, history of printing, history of books exchange, woodcut printing, type printing.